

# 영암군, 당정협의회 통해 현안사업 추진 '가속도'

### 국립 마한 역사 문화센터 유치 등 10건에 2,740억원 건의 우승희 군수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기대"

영암군은 지난 20일, 군청 남산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우승희 군수와 소상원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강찬원 군의회 의장 및 도·군의원, 읍면 협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군에서는 10건, 2,740억원의 2024년도 국비 지원사업을 건의했으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1,200억원) ▲폐산업시설(대동공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산업(250억원) ▲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450억원) ▲남생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50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200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 비용(30억원) ▲영암~금정 지방도 819호선 개선사업(100억원) ▲국도13호선 영암교차로 개선사업(100억원) ▲국도 23호선(영암 금정 IC~ 장흥유치) 시설 개량사업 등 지역특화 시설 확충과 관내 주요 교통망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국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으며,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사업 ▲전남 서남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영보정 주변 관광자원화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군민의 강 및 군청 광장 조성사업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추진 등 군민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승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8기 들어 처음 열린 이번 당정협의 자리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안건들에 대해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당정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세이프루언서' 공모 선정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오가나(주)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세이프루언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세이프루언서'는 SAY(Sexuality About the Youth)와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주제로 발언하고 건강하고 평등한 성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이다.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에코+세이+포텐이 터지다'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사춘기에 접어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태 감수성과 성인권 감수성을 결합한 에코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번 공모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이번 선정에도 전남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인정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여성가족부의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의 전라남도 지역운영 기관으로서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신안군, 제2기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식

신안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제2기 정원해설사 양성교육(기초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정원해설사 양성교육은 지난 2월 20일 ~ 3월 20일 까지 한 달간 총 5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신안군의 각 섬별 정원 자원에 대해 알아가며 명품해설을 위한 스피치 교육과 더불어 현장 실습 교육을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섬 1테마정원을 만들어 가고있는 1004섬에서 정원해설사의 역할이 매우 크며 교육을 받기 위해 섬 지역 읍·면에서도 배를 타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생 모두가 신안군의 힘이 다"며 "신안군 정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정원해설사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량을 갈고 닦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 위한 협약 체결

영광군은 이날 20일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을 위한 협약"을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단과 체결했다. 영광군은 현재 일일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이나 내구연한(15년/2022년)이 경과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반영한 적정용량의 최신 소각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최초 개최 후 3년 3개월 간의 협의 결과 기존 환경관리센터 부지 내 일일 40톤 규모의 소각시설 증설과 친환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주민동의를 얻어냈다.

주민대표 간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3~2024년 2년간 49억 원과 매년 7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2032년까지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에 지원하며, 최신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와 환경실무원 채용 시 주변영향지역과 흥농읍 주민을

우선 배려한다는 내용이다. 영광군은 향후 2026년이면 새로운 소각시설의 가동을 예상하고 있으며, 본 협약을 통해 2030년부터 금지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영광군은 협약 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는 등 법적적인 절차도 하나씩 진행해 나갔으며, "공법선정 시 충분한 선진사례 답사를 통한 결정"과 "폐기물처리시설이 항상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당부가 있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영광군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와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노고와 감사를 드리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함평군 해보면, 기관·사회단체장 회의 '성료'

함평군 해보면은 지난 21일 해보면사무소에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첫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기관·사회단체 간 상호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과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함평=김광춘 기자

# 무안군, 벼 제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접수

무안군은 벼 제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임산물 등(벼 제외)을 재배하고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이다.

벼 제외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유기농 상품, 품목 다양화 등 인증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양파·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22년에는 과수·채소 품목으로 확대했고 올해는 벼를 제외한 인증 품목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신청 희망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입팀에 신청하면 된다.

장오중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에 철저하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